



전세계 라그나로크 게이머 한데 모여

제1회 라그나로크 월드 챔피언십 성황리에 개최 ... 이번 속출 대만팀간 결승전

전세계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이머들이 한국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축제의 자리가 마련됐다. 전세계 18개국, 2,500만명의 유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MMORPG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는 그라비티는 지난달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서울 코엑스 태평양관 전관에서 '제1회 라그나로크 월드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했다.

글 / 신승철 기자

'We are the Stars in Ragnarok, RWC 2004(우리가 라그나로크의 스타다, RWC 2004)' 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1회 라그나로크 월드 챔피언십이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서비스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 20여 국가를 대표하는 게이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웅을 겨루는 세계대회로 꾸며졌다.

현재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진출해 있는 19개국에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의 친선 선수단을 포함, 총 21개국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1등 상금으로 1만달러를 비롯해 총 시상 규모만 1억원에 달했다. 본선에 국가 대표 선수단을 파견한 국가는 11개국이었으며, 본선에 참여한 선수인원은 총 18개 팀, 162명이었다.

세계 각지에서 치열한 예선전 펼쳐져

이번 라그나로크 월드 챔피언십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서는 치열한 예선전이 펼쳐졌다. 첫 국가대표를 선출한 국가는 700만 중국 라그나로크 유저를 갖고 있는 중국.

'2004년 선정전설 온라인 국제 길드 초대전' 이란 대회명으로 개최된 중국대전은 지난 5월18일부터 6월8일까지 길드대전 전용 서버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256개 길드와 2,304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열띤 투혼과 다양한 전략으로 각축을 벌인 결과 1위를 차지한 'Dragon Battle' 길드와 2위를 차지한 '아특총당' 이 한국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대회를 한달여 남겼던 지난 6월19일에는 중국에 이어 대만에서 국가대표팀 선발전이 치러졌다. 대만은 현재 동시 동점자수 33만명으로 라그나로크 세계 최고 동점자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많은 총 2,048개나 되는 많은 길드



▲ '제1회 라그나로크 월드 챔피언십'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경쟁이 치열했다.



▲ 이번 대회 예선전은 세계 각지에서 펼쳐졌다. 사진은 미국의 예선장면.



▲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전세계 21개국, 300여 명이 도열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있다.

들이 참가해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며, 그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전략에 있어서도 월등함을 보여줬다.

그 결과 'THE GATES OF HELL' 팀이 1위, 'UNFORESE EABLE' 팀이 2위를 차지했다. 라그나로크 온라인 상용화 10개 월만에 동접자수 3만8,000으로 최고 인기게임으로 등극한 필리핀은 지난 6월19일, 20일 이틀에 걸쳐 대표선수단을 선발했다.

각 서버의 총 6개 대표팀과 유저의 인기투표에 의해 뽑힌 1개의 길드를 포함 총 7개의 길드가 격돌하는 접전을 펼쳤는데, 그 결과 1위는 로키 서버의 'Unholy' 가, 2위는 케이아스 서버의 'Rebirth' 가 차지했다.

도쿄 한복판에서 펼쳐진 일본대표 선발전에는 'Guardian-Chevalier' 길드가 우승의 영예를, '321Colors' 길드가 준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Guardian-Chevalier 길드는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길드 멤버 전원이 결승에까지 함께 올라 행사장을 가득 메운 라그나로크 온라인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준우승을 차지한 321Colors 길드 역시 경기 후 인터뷰 자리에서, 라그나로크 월드 챔피언십 본 대회를 통해 한국 등 다른 국가의 대표 길드들을 비롯, 우승을 아깝게 양보한 Guardian-Chevalier 길드에게도 복수극을 펼치겠다는 승부욕을 숨기지 않아 많은 유저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국 국가대표 길드는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오프라인 대회에서 결정됐다. 특히 온라인 대전에서는 다양한 캐릭터의 다채로운 기술들이 선보여 플레이어들의 뛰어난 실력을 한껏 뽐내는 자리로 꾸며졌다.

비단 기술시전뿐 아니라, 지형을 이용한 전략적인 대회 운용, 상대방의 주력 캐릭터를 초반에 집중 공략함으로써 게임의 판도를 뒤집는 짜릿한 역전승 등 평소 공성전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이상의 화려한 플레이가 연이어 펼쳐졌다.

총 176개의 길드와 1,584명의 인원이 참가한 온라인 대전에서 수많은 경쟁 길드들을 물리치고 10개 지존 길드들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들 10개 길드들이 지난 6월 27일 코엑스 세종게임월드에서 경합을 결인 결과, 'Angel' 길드와 'THE_ONE' 길드가 각각 우승,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7월4일 열린 미국 라그나로크 챔피언십 대회에서는 'XGMR' 길드가 우승, 이날 준우승을 차지한 'Denuo Conv ena' 길드와 함께 마지막으로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양팀은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종주국인 한국팀을 꼽고 한국팀의 경기 비디오 파일을 길드원들과 분석, 전략을 구상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아듀! 라그나로크 월드 챔피언십 2004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타악기 퍼포먼스 팀 도깨비 스톱의 공연으로 시작된 라그나로크 월드 챔피언십은 깃발을 높이 든 전세계 21개국, 300여명이 도열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지고 이틀 동안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장에는 라그나로크 팬들이 몰려 대회장을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채웠다. 특히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게이머들의 오프라인 축제인 라그나로크 페스티벌을 이번 라그나로크 월드 챔피언십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개최, 대회의 축제 분위기를 더욱 북돋웠다.

이번으로 세 번째를 맞는 라그나로크 페스티벌에는 슈퍼 콘서트, 각테일쇼, 댄스 경연대회, 코스튬 플레이 경연대회, 애니메이션 상영관, 각종 엔터테인먼트 존 등 일반 게이머들도 함께 참여하고 직접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첫 날 하루종일 진행된 A조 예선에서는 무려 34만명의 동접자수를 자랑하는 대만의 THE GATES OF HELL 길드가 우승을 차



▲ 본선대회에서는 다양한 캐릭터의 다채로운 기술들이 선보여 보는 이들을 감탄케 했다.



▲ 행사장에는 라그나로크 팬들이 몰려 대회장을 입추의 여지없이 가득 채웠다.



▲ 이번 대회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지했으며, 경기 종료 후 코요태, MC몽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라그나로크 슈퍼 콘서트를 끝으로 첫 날 일정이 마감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운영자들의 예상을 뒤집는 이번이 속속 연출되어, 대회를 지켜보던 라그나로크 유저들을 더욱 즐겁게 했다.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종주국으로써 큰 어려움 없이 상위권 입상이 예견되던 한국의 Angel, THE_ONE의 두 대표 길드가 예선 1차전에서 만난 중국팀에게 각각 패배의 쓴잔을 마셨으며, 상대적으로 약체로 분류되던 미국 길드들이 의외의 강세를 보였다. 각국의 예선 결과들이 속속 발표돼 상위권 길드들의 운곽이 드러난 둘째 날은 결승전에 이르러 그 정점에 다다랐으며, 대만팀이 모두 결승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우승과 준우승을 독점한 대만 선수들은 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탄하게 짜인 팀플레이와 노련한 전술전략을 무기 삼아 적지 않은 수의 각국의 대표 길드들을 9:0 압도적인 스코어로 제압,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특히 대만 선수들은 2,000 여개의 길드가 참가, 가장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던 자국 내 예선 대회 이후로도 수주일에 걸쳐 강도 높은 합숙 훈련을 통해 실력을 연마했음이 드러나 이들이 우승과 준우승을 석권한 것이 단순한 이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이날 결승전에서는 대만의 UNFORESEEABLE 길드가 THE GATES OF HELL 길드를 제압, 대만지역 예선전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고 첫 챔프에 등극했다.

우승을 차지한 UNFORESEEABLE 길드의 Wu Tzung Jie 길드 마스터는 “연습을 후회없도록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만이 승리할 것이라 기대했다.

한국의 대전 운영 시스템과 진행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대만에서도 이런 대회가 반드시 열렸으면 한다. 내년 대회에도 꼭 출전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 한수위의 기량을 뽐낸 대만팀들이 파죽지세로 결승행을 결정짓고 우승, 준우승을 독식했다.




◀ '제1회 라그나로크 월드 챔피언십' 대회 포스터

대만의 길드가 전세계 라그나로크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폐막식을 끝으로 성대하게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는 본선 출전 선수들은 폐막식이 끝난 후에도 승자와 패자의 구분 없이 전 시장을 돌며 서로 껴안고 인사를 나누는 등 우정을 나누기에 부족했던 이들 동안의 기회를 아쉬워했다.

이날 대회에는 각 국가별로 라그나로크를 서비스하고 있는 파트너사들의 사장단들도 직접 자리를 함께 해 세계 게임업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의 모습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이 대거 방문, 라그나로크 월드 챔피언십에 쏠린 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대회 첫 날 치러진 기자 간담회 장에는 프레스룸을 가득 메우는 100여명의 기자들이 참여,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이번 행사를 기획, 주관한 그라비티의 김정률 회장은 직접 무대에 올라 “라그나로크 월드 챔피언십의 슬로건처럼 여러분이야말로 라그나로크의 진정한 스타”라며 “라그나로크가 전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이러한 세계대전을 치를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라그나로크의 유저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라그나로크를 서비스하고 있는 파트너사들의 사장단들도 참석해 세계 게임업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